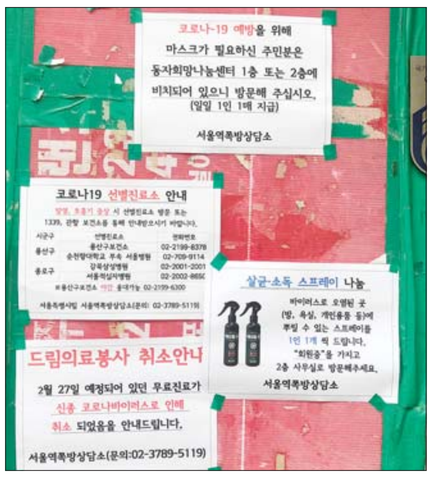
"당장 잘 곳, 먹을 것이 더 걱정" 김씨는 이틀째 굶었다

르포 | '코로나 직격탄' 쪽방촌·노인쉼터 가보니

일용직 노동자들 일거리 없어
일세 못내 쪽방서도 내몰릴 판

일주일 두번 식량 배급하던 교회
코로나에 기부 끊겨 어려움 호소



지난 4일 용산구 쪽방촌에 코로나 19 여파로 의료봉사가 취소됐다는 공지가 벽에 붙어있었다.

쪽방촌 노인들이 용산 모리아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모리아 교회는 예배가 끝난 후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칸 씩 떨어져서 앉았다. /조효정 기자

서울역 13번 출구 한 무료급식소 앞. 검은 운동복, 삼선 슬리퍼, 검은 패딩 복장에 하얀 마스크와 하얀색 목걸이를 착용한 60세 김 씨는 우두커니 서서 한 공지사항을 읽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료 급식은 한동안 없습니다." 그는 "에잇. 오늘도 굶겠네"라며 머리를 긁적인 뒤 돌아선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노숙인 쉼터 곳곳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000를 중단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용산 쪽방촌은 거주자 대다수는 일용직 노동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배고픔

서울시쪽방촌상담소에서 약 300m 거리에 보이는 회색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에 다다르자 쪽방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쪽방 앞에 다다르자 오 씨(58)가 문을 열었다. 그에게서 소주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꽤 깔끔한 외관을 보여줬다.오 씨의 쪽방 생활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더는 일세를 낼 돈이 없기 때문. 일용직 노동자인 오 씨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일거리가 확 줄었다. 전에는 경제가 안 좋다 해도 파주나 수원까지 내려가서 일하면 됐다. 그러나 이젠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내일 잘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오 씨는 "배가 너무 고프다.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하루에 하나씩 사발면을 먹고 있지만 곧 이마저도 사 먹을 돈이 떨어진다"고 고백했다.

서울시쪽방촌상담소 앞에서 만난 김 씨는 "이틀째 굶고 있다. 서울역 앞에 무료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해서 갔는데 허탕 쳤다. 무료 급식소 수가 너무 줄어 빨리 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며 배고픔을 호소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은 민심

용산 쪽방촌에 있는 모리아 교회는 일주일에 두 번 쪽방촌 주민들에게 쌀과 라면을 비롯한 식량을 배급한다. 무료배급에 익숙해지는 대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 자립심을 키우고 싶다는 윤요셉 담임목사의 뜻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입구에서 열을 체크하고 손 세정제를 바른 뒤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노인들은 교회 봉사자들 안내에 따라 한 칸씩 떨어져서 의자에 앉았다.

예배가 끝나고 윤 목사는 노인들에게 일회용 마스크, 튜브형 손 세정제, 그리고 식량을 나눠줬다.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 윤 목사에게도 근심은 있었다.

윤 목사는 "우리 교회는 기부를 통해 운영된다.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경제난이 겹치면서 기부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 한 도넛 브랜드에서는 매주 팔고 남은 도넛을 보내줬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부를 중단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른 무료배급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역 근처에 있전에는 하루 두 끼를 배급했었지만, 지금은 하루 한 끼를 배급하기도 어려워 주 2회에서 4회 정도로 횟수를 줄였다"고 전했다.

◆"아파도 돌봐줄 이 없어" 위생도 걱정

모리아 교회는 예배마다 400명의 쪽방촌 신도들이 온다. 현재 열이 나거나 감기, 폐렴을 앓는 환자들은 출입을 금했다. 300명이나 달한다. 윤 목사는 "직접 300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그들은 혼자 쪽방에 누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약도 사 먹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쪽방촌 이용자들은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 전 방역을 시행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매일 수백명의 행려자들이 이용하고 떠나가고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무료로 배급받은 마스크와 방역 목걸이뿐이다.

쪽방촌에 앉아있던 오 씨(60세)가 기침을 시작했다. 그는 "약을 먹는 건 사치다. 무료로 진료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문을 닫은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 초부터 고혈압, 당뇨 등을 체크하던 무료 외래 진료가 모두 취소됐다. 의대생 봉사 동아리들도 봉사를 중지했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1000명이 넘지만, 이들의 건강은 간호사 두명이 책임지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연수원서 의료진·헌혈까지… 재계 "함께 해요"

재계, 도움의 손길 훈훈

- **삼성** 연수원 개방… 업계 첫 지원 의료진 파견, 긴급자금, 생필품까지
- **LG** 550실 규모 LGD 기숙사 제공
- **한화** 용인시에 민간연수시설 개방
- **현대차** 공장 순회 '헌혈 캠페인'
- **카카오** 기부 캠페인 '같이가치'

한화생명 라이프 파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연수원을 제공하거나 헌혈에 적극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스타트는 삼성이 끊었다. 삼성은 지난 2일 경북 영덕 소재 삼성인력개발원 영덕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가운데 삼성의료원 의료진까지 파견해 인력 부족 문제를 돕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의료진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3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증 환자들의 자가 체온 측정 확인 등 모니터링 역할을 맡아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삼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 1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물품 대금 1조 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2조 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LG는 4일 경북 구미시 2공단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기숙사(총 383실), 경북 울진군 내 LG생활연수원(총 167실) 등 총 550실 규모의 시설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병상 부족으로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 격리돼 있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한화그룹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한다. 특히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 민간 연수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화가 처음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경증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는 한화생명 임직원과 FP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원한 스마트 연수시설이다. 대지 면적은 8만 2000제곱미터, 연면적은 3만제곱미터에 달하며, 연간 1만2000여명의 한화생명 임직원과 FP들의 교육시설로 이용되는 곳이다.

2곳의 숙소동에 침대, 화장실, 샤워시설, TV, 와이파이 환경을 개별적으로 갖춘 2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이 시설에 대해 지난 1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현대차는 최근 헌혈 보유량이 급감한 의료계에 도움을 주고자 대규모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달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버스 4대를 이용해 울산공장(500만m)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노사는 또 방역에 소외당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울산공장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KF-94) 4만개를 지원키로 하고 물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품 협력사 지원도 본격화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협력사에 지난달까지 마스크 11만장과 손 세정제, 소독액을 우선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지역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 상인을 돕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울산페이)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사전 방역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5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냈고, 그룹 차원에서 중소 부품 협력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대 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카카오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사 사회공헌 플랫폼 '같이가치'에서의 기부 캠페인 모금액에 회사 기부 금액 20억원을 합쳐 기부에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중 20억원에 해당하는 1만1000주(4일 종가 기준·변동 가능)를 기부한다. /양성운 기자 ysw@

마스크 80% 공적판매 1인당 1주 2매로 제한 수출 원칙적 전면금지

정부가 공적 판매 마스크 물량을 일일 생산량의 80%까지 늘린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으로 판매되는 마스크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주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약국 판매이력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고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해 마스크 공적 판매 물량을 기존 일일 생산량의 '5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일일 생산량의 10%까지는 허용되던 수출도 인도적 목적과 같은 제한적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나머지 20% 물량은 공적 판매 외 민간으로 유통된다. 민간 유통 물량 중 동일인이 1일 3000매 이상 구매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1만 매 이상 거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생산 설비 확충과 원자재인 MB 필터 확보, 인력과 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국내 생산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1인당 1주 2매' 구매 제한은 오는 6일 약국 판매부터 시행된다. 다만 6일부터 8일까지는 '사흘간 1인 2매'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김민지 기자 kmj@